

#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

박성창\*

1. 들어가며 - '한국문학'의 개념 규정과 중국의 신문학
2. 이육사와 루쉰의 비교 연구의 의미와 쟁점
3. 이육사의 정치평론과 『노신추도문』에 드러난 문학적 모색
4. 『노신추도문』에 드러난 '루쉰정신'의 핵심
5.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
6. 나가며

## 〈국문초록〉

조선의 신문학과 중국의 백화문학이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신문학 건설의 도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비교와 대비적 관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의 신문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문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 근대문학과 1920년대 이후 한국 근대문학이 서로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실하고, 문학적 수수관계의 성립에 필수적인 동시대성을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육사는 루쉰의 문학과 사상과의 만남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이 걸어가야 할 문학의 길을 열고자 한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이육사에게 루쉰의 문학과 사상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소중한 까닭은 혁명가로서 신산한 행동적

---

\* 서울대학교

삶에서 상징적인 문학적 세계의 창조로 이행한 이육사의 실존적 방향전환에 루쉰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으며, 그러한 전환의 논리적 바탕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이육사가 「노신추도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되새기고자 한 '루쉰정신'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해보고자 했다. 1936년 루쉰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육사에게 남은 길은 정치적 행동과 참여의 길도 아니었으며, 혁명문학의 길도 아니었다. 몇 편의 정치평론을 통해 마치 루쉰이 '잡문'의 형식을 통해 현실을 향해 '투창과 비수'를 날렸듯이 정치적 행동에 버금가는 글쓰기를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대 조선의 현실을 중국의 현실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도 육사가 꺼내든 '비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육사와 루쉰이 남긴 수필과 시편들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파시즘의 광기 속에서 육사가 묵묵히 문학을 통한 진정한 혁명, 영원한 혁명의 가능성을 루쉰의 문학을 자양분으로 삼아 이루어나가고자 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주제어:** 이육사, 루쉰, 김태준, 한 중 비교문학, 문학과 정치(혁명), 문학적 참여

## 1. 들어가며 - '한국문학'의 개념 규정과 중국의 신문학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변천과정을 겪어왔다. 1910년대 이광수와 안확은 각각 조선문학 정의와 문학사 서술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문학의 개념 규정을 시도한 바 있다. 특히 이광수의 경우 191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문학으로서 한국문학'이라는 정의를 확립한다. 이광수의 한국문학(조선문학) 규정에는 한국문학을 정의하고 그 범주를 규정함에 있어 한국

어(조선어)를 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한문학을 배제하고 번역문학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문학어로서 한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문학 개념 규정은 그 반대급부로 한문학을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배제시킨다. 이광수의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 김태준의 작업이 놓여 있다. 김태준은 한글문학만이 조선문학이며, 한문학은 역사의 골동품으로서 결산 또는 청산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논의와 유사하다. 다만 조선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국문학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겹쳐 놓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김태준의 시각이 훨씬 더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경성제대 지나어문학과 1회 입학생으로서 김태준의 위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김태준은 중국 고전문학과 백화문학의 이원구조를 조선한문학과 조선어문학의 이원구조에 대응시키고 이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중국 고전문학과 조선한문학이 퇴화의 과정을 밟는 것과 정반대로 백화문학과 조선어문학은 진화의 과정을 밟는다. 조선의 한문학은 “중국의 문물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습용(襲用)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지금까지도 한학유생 내지 대가들도 경술과 문장이 일도(一道)라고 하여 막연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문학’이라는 새로운 관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재를 산수화월(山水花月)에서만 구하는” 조선의 한문학 대신에 “문예재료가 사회생활에 근거를 두는” 신문학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김태준은 단순히 한글이 조선민족 고유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문학=조선문학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문학에서 백화문학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끌어낸 중국의 문학혁명을 조선의 신문학을 쇄신하기 위한 거울로 삼고자 했다. 그의 『조선한문학사』(1931)는 조선 한문학의 ‘결산보고서’인 동시에 중국 신문학과 대화적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담긴 저술이기도 하다. 그의 문학사는 단순히 지나간 문학의 변천과정의 서술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조선의 신문

학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의 문학혁명을 참조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새로운 문예작품을 소개하며, 혹은 배우지 않으면 안되겠다”<sup>1)</sup>고 다짐하면서, “일의대수(一衣帶水)로 중국과 인접한 조선이 어찌 잠깐이라도 중국을 잊을 수 있을까? 영구히 연락·부조(扶助)·제휴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sup>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김태준은 경성제대 재학 시절 “새로운 모색의 일환으로” 북경을 다녀오기도 하고, 중국 신문학의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그렇다면 김태준이 중국의 신문학과 긴밀한 접촉을 통해 얻고자 한 ‘새로운 지평’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에는 건설 도상에 있는 신문학이 많이 있다는 것과 중국문학 연구의 사명은 오로지 이 신문학 수입 소개 번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와 문학을 일원(一元)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도 이때입니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 가장 큰 충동을 준 것은 중국의 가장 우수한 중견작가 당시의 중견 K씨가 쓴 『중국고대사회연구』를 읽은 데 비롯합니다. 나의 머리에서 사서삼경을 완전히 극복한 것도 이때요, 고문학(古文學)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것을 발명한 것도 이때요, 새로운 세계관을 확실히 모색하려고 했던 것도 이때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경제학 서적도 읽어보고 역사과학 책도 읽어보고 잠시 고사(古史) 연구에 몰두해 본 적도 있습니다.<sup>3)</sup>

이 글에서 김태준은 외국문학으로서 중국문학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신문학의 소개와 번역 작업을 통한 조선 신문학의 부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 그러나 이러한 포부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가 중국 신문학을 통해 얻고자 한 ‘새로운 세계관’이 정치와 문학의 일원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 중국 문인 ‘K씨’로 소

1)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태학사, 1994, 255쪽.

2) 위의 책, 같은 곳.

3) 김태준, 「외국문학 전공의 변」, 『김태준 전집』 제 3권, 보고사, 1998, 281-282쪽.

개된 귀모뤄(郭沫若)의 유물론적 관점에 입각한 사회 분석에 강한 지적 자극을 받은 김태준은 신문학 소개 작업에서 벗어나 지식인으로서 참여와 행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sup>4)</sup>. 실제로 김태준은 1944년 말 “조선독립을 위한 직접적인 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연안행(延安行)을 감행한다. 또한 중국의 문학혁명은 김태준에게 중국문학의 신·구를 가르는 이론적 거점으로 작용할 뿐이지 동시대 조선 신문학을 설명하는 구체적 틀이 되지 못했다 :

조선의 소설은 원래 이야기책에서 출발했다. 그러한 내용과 형식이 양반사회의 퇴물이었다. 시민은 이양(異樣)의 문학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외래의 소설을 수입하여 이야기책을 개혁해서 현대적 의미의 소설을 쓰게 된 것인데 중간에 과정적으로 신소설시대를 지났다.<sup>5)</sup>

위에서 김태준이 말한 ‘이양의 문학’이란 중국의 신문학이 아니라 서구 혹은 일본에서 온 ‘외래의 소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문예운동 이후의 소설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잃고 만다. 그 대신 서구·일본이 중국의 자리를 차지한다. 서구·일본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감에 따라 중국 문학혁명에 근거한 김태준의 설명은 논리적 설득력을 상실한다.

1920, 30년대 중국 신문학에 대한 조선 문단의 관심은 결코 적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920년대 중국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 신문학의 소개와 번역에 주력했던 정래동(丁來東)의 다음 발언에 잘 나타난다 :

---

4) 김태준이 귀모뤄를 통해 유물사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용범, 「김태준과 귀모뤄 : 한 고전학자의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민족문학사연구』 5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겨울)을 참조할 것. 김태준이 귀모뤄로부터 정치와 문학의 일원성을 이끌어냈다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육사는 루선으로부터 정치와 문학의 ‘제 3의 관계’를 사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에 김태준과 귀모뤄, 이육사와 루선을 비교 고찰하는 시도는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

5)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44쪽.

필자가 중국에 유학한 것은 우리나라 삼일운동 후요, 중국의 오사운동 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문일치의 운동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며, 중국에서는 문학혁명으로 방향을 돌려서 백화문운동으로 발전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문학의 발전과 중국의 백화문학의 진도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런만큼 피차의 관심도 컸으며, 필자의 중국문학 소개문 같은 것도 우리나라 紙誌에서는 우대하여 주었다.<sup>6)</sup>

조선의 신문학과 중국의 백화문학이 서로 긴밀한 영향관계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신문학 건설의 도상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비교와 대비적 관찰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의 신문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문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신문이나 잡지에 소개된 중국 관련 기사들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전신자의 입장을 벗어나 신해혁명 이후 중국 근대문학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근대문학의 쟁점을 거울 삼아 한국 신문학의 미래를 깊이 있게 고민한 문인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sup>7)</sup>.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조선의 신문화 건설을 위해서 중국 고유의 문학과 사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많은 문인들의 생각이 중국 신문학으로 전이되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6) 정래동, 『정래동전집』 1권, 금강출판사, 1976, 9-10쪽.

7) 이를 중국 근대문학 번역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1920~30년대 내내 활발하게 번역 소개된 서양문학과는 달리 중국문학은 “소수의 근대 작가가 소수의 전문 번역가에 의해 포착된” 매우 제한된 수용의 결과를 낳았다 : “근대 한국에서의 번역은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편향된 서양문학에 집중되었으며, 세계문학이라는 관념 역시 러시아와 프랑스 문학 번역을 기축으로 태동하여 숙성했다. 반면에 중국문학은 기껏해야 전근대문학의 원류로서 위상을 차지했을 따름이며 식민지 시기 내내 독자적인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중국의 근대문학이 번역된 사례는 매우 희소할뿐더러 세계문학의 권역에 중국문학이 포섭된다든가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5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124쪽)

중국 고유의 문학과 사상은 우리의 신문화를 건설하는 상(上)에 소호(小毫)의 자료를 공급할 것이 되지 못하도다. 작일(昨日)까지 그의 여류(餘流)를 급(汲)한 관계상 또는 동양문화의 일대주맥을 성(成)한 관계상 단(單)히 역사적 의의를 유할 뿐이로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일고의 노(勞)를 여(與)하였으면 족할 것이라 하노라.<sup>8)</sup>

중국의 전통 사상과 문학에 대한 반감이 중국 신문학에 대한 편견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뛰어넘어 진정한 문학적 영향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문학적 만남의 사례 또한 드문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이육사와 루쉰의 문학적 만남을 떠올린다. 신해혁명 이후 중국 근대문학과 1920년대 이후 한국 근대문학이 서로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상실하고, 문학적 수수관계의 성립에 필수적인 동시대성을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육사는 루쉰의 문학 및 사상과의 만남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이 걸어가야 할 문학의 길을 열고자 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루쉰으로부터 받은 문학적 ‘영향관계’의 규명에서 벗어나 루쉰을 ‘매개’로, 혹은 루쉰을 ‘벗’ 삼아 이육사가 도모한 문학적 기획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 2. 이육사와 루쉰의 비교 연구의 의미와 쟁점

이육사는 1932년 6월 한국 문인으로서는 드물게 루쉰과 대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sup>9)</sup> 1936년 10월 루쉰이 세상을 떠난 직후 나흘 만에 그의 죽음을

8) 妙郷山人, 「중국문학의 가치를 논함」, 『개벽』 4호, 1920, 90쪽.

9) 한 연구에 따르면 루쉰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루쉰이 만난 조선의 문인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육사가 루쉰을 만난 이듬해인 1933년 5월 동아일보 기자 신언준이 루쉰을 인터뷰한 적이 있으며 그 다음 해에 기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언준, 「중국의 대문호 노신방문기」, 『신동아』 1934년 3월호). 이상 홍석표, 「노신의 식민지 조선 인식에 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26, 중국어문학회, 2008에서 참조.

애도하고 그가 남긴 문학의 의미를 조명한 「노신추도문」(조선일보, 1936년 10월 7일)을 썼다. 노신의 단편소설 「고향」을 번역해서 잡지 『조광』에 발표한 것도 그해 12월이었다. 그러나 육사의 관심은 루신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후스(胡適), 쉬즈모(徐志摩), 꾸딩(古丁)과 같은 중국의 신문학 전체로 확장되어 있으며, 신문학을 넘어서서 당대 중국의 현실과 관련된 시사적인 글(일종의 시사평론 혹은 정치평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을 발표한 바 있다. 시기적으로도 육사의 중국 체류 및 중국 관련 글들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를 거쳐 1940년대 초반까지 육사의 문학적 활동 시기 전반에 걸쳐 있다. 근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육사의 관심이 일시적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sup>10)</sup>.

이육사와 루신의 비교가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근대문학 비교 연구를 위한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되는 까닭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자.

우선 루신과의 비교 연구가 중요한 까닭은 이육사가 서구-일본이라는 제국의 창을 통해 근대에 다가서려고 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당대 조선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를 사유했다는 점이다.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는 대부분 서구문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일본을 경유지로 하는 영향 연구의 관점을 취한다. 문제는 한국 근대문학과 중국 근대문학은 영향관계라는 틀로는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영향관계를 표명한 문인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주고’ ‘받은’ 수직적 위계질서를 형성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육사와 루신의 비교 연구는 비교문학 연구를 서구-일본-조선에서 조선-중국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면서 영향연구의 한계를 돌파하는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10) 한 연구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육사를 “한국의 제 1세대 중국현대문학 연구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 “육사의 중국 유학 및 중국현대문학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는 육사 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 시기 한·중 문학교류 및 학술교류의 범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홍석표, 「이육사의 중국유학과 북경중국대학」, 『중국어문학지』 29, 중국어문학회, 2009, 83쪽)



또한 루쉰과의 비교 연구는 동아시아 근대의 의미를 문학을 통해 반추하는데 소중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된 서구 국가들로부터 근대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았다. 종과 서, 신과 구, 전통과 근대의 대립이라는 모순된 상황 속에 놓인 중국의 근대 지식인들은 다양한 근대 기획을 제시했으며, 이는 서구적 근대의 보편성의 요구와 동아시아적 특수성의 현실이 마주치는 지점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요구했다. 루쉰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구적 근대의 현란함에 현혹되지 않으면서도 그 핵심적 지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지식인이었다. 중국과 서구, 전통과 근대의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루쉰을 중심에 두고 이른바 '대비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근대문학의 개척자로 중국의 루쉰, 한국의 이광수, 일본의 나쓰메 소세키를 비교하는 작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동아시아 3국이 지리적 근접성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근대화의 행로를 밟았음을 상기할 때, 작가이면서도 사상가이기도 했던 이 세 문인들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되기에 충분하다<sup>11)</sup>.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좁은 영향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대비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세 번째로 루쉰과 이육사의 비교 연구는 전통과 근대의 문제에 소중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는 이육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전통'과의 관련성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육사의 작품 형태가 지니고 있는 정형성과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방식, 동양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 등을 통해 육사의 몸매 질게 배인 한시적 교양을 거론하거나, 그가 치열한 삶과 문학을 통해 보여주었던 선비나 지사적

11) 예컨대 다음 지적이 이러한 대비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도 바깥의 서구도, 이전의 동양도 아닌, 독자적인 '제 3의' 무엇으로서 '동양적 근대'를 표명하고 모색하였던 루쉰의 사상적 고투가 있었기에 중국 내에서의 '인간해방 과정'은 군국주의 일본이나 식민지 조선과는 다른 길로 나가게 되는 역사적 가능성을 얻을 수 있었다." (강계숙, 『근대성 창출의 또 다른 길』, 『인문학연구』 46,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2013, 116쪽)

기개를 증거로 유학적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업은 1970년대 육사 시 연구 초기단계(김윤식, 김종길, 김홍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강력한 해석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sup>12)</sup>.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육사 자신의 발언이나 육사의 한시 및 유교적 소양을 강조한 신석초 같은 지인의 발언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sup>13)</sup>. 예컨대 육사의 다음 발언이 이러한 해석의 단초가 될 수 있다 :

맛쉬 아놀드의 말에 따르면 교양의 근원이란 것은 한 개 완성에의 지향이라고 하였으니, 우리의 정신문화의 전통 속에 어떠한 형식이었던지 이런 것이 있었고, 서구와 동양사상을 애써 구별하려고 해 보아도 지금의 우리 머리 속은 순수한 동양적인 것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별 말할 필요조차 없으므로 지성 문제는 유구한 우리 정신문화의 전통 속에 그 기초가 있었고 우리가 흡수한 새 정신의 세련이 있는 만큼 당연히 문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를 경과한 구주문화도 이제는 벌써 구주만의 문화는 아닌 것이며, 그들의 정신적 위기도 그들만의 위기라고는 생각해지지 않는 까닭입니다.<sup>14)</sup>

육사의 이 발언은 순수하게 동양적인 것과 순수하게 서양적인 것은 존재

12) 그 대표적 연구로 최병우, 「이육사 시 연구 : 한시 전통 계승문제」,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86, 박현수, 『현대시와 전통주의의 수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을 들 수 있다.

13) 예컨대 육사의 다음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 : “외국문학 유산의 검토도 유산이 없는 우리 문단에 필요한 일이겠지만 과거의 우리나라의 문학에도 유산은 적지 아니합니다. 좀 찾아보십시오. — 그저 없다고만 개탄치 말고.”(『1934년 문단에 대한 희망 : 앙케이트에 대한 응답』, 『이육사전집』, 깊은샘, 2004, 378쪽) 신석초의 다음 발언도 참고할 만하다 : “특히 많은 재사들이 그러하듯이 옛날 시의 명귀를 암송할 때는 매우 감격적이고 재치가 있어 보였다. 그는 시문뿐 아니라 흥미나서 붓을 들면 글씨도 능하였고 난초나 매화 절지 따위도 곧잘 그렸었다.” 혹은 “육사는 한시에도 능하였다. 남들처럼 떠들거나 고심을 하는 빛도 없이 조용히 구상하고 조용히 불렀건만 항상 신선한 시귀가 흥미를 돋구었다.”(신석초, 「이육사의 인물」)

14) 이육사, 「朝鮮文化는 世界文化의 一軸 : 知性擁護의 辯」, 『이육사전집』, 344쪽.

하지 않으며 새롭게 대두하는 근대의 틀 속에서는 무엇보다 동서양 문화의 상호 침투와 지속적인 교섭이 중요하다는 전언을 담고 있다. 육사의 한학 소양 및 주자학적 세계관을 강조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중국 신문학에 대한 이육사의 관심과 열정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육사와 중국 신문학 더 좁게는 루쉰 문학과 비교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형편이다<sup>15)</sup>.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육사의 전통지향성이 역으로 ‘육사에게 근대란 무엇인가 혹은 육사에게 전통과 근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육사는 전통을 부정하는 서구추수주의의 유혹을 견뎌내면서도 전통으로의 회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특한 사유를 펼친 인물이다. 이육사의 한학 및 유학적 세계관이 한편으로는 성장기의 육사에게 세계관과 가치관의 틀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세게 밀려드는 근대화의 힘을 버텨낼만한 확고한 안정성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이육사는 전통으로 회귀하지도 서구추수주의에 빠지지도 않으면서 제 3의 길을 모색한 문인으로 평가해야 한다. 바로 그 점에서 루쉰과의 비교는 빛을 발한다. 루쉰이야말로 전통과 근대(반전통) 사이에서 제 3의 길<sup>16)</sup>을 찾아나선 대표적인 지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육사에게 루쉰의 문학 및 사상과의 만남이 무엇보다 소중한 까닭은 혁명가로서 신산한 행동적 삶에서 상징적인 문학적 세계의 창조로 이행한 이육사의 실존적 방향전환에 루쉰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

15)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노신 문학 수용 양상」, 『연세어문학』 19, 1986, 「이육사의 서지마 시 수용 양상」,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홍석표, 「이육사의 중국유학과 북경중국대학」, 『중국어문학지』 29, 중국어문학회, 2009, 「시인 이육사와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 5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 이시환, 「근대성의 궤적: 이육사의 중국문학 수용과 변용」 『동북아 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16)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루쉰의 사유체계를 전통과 반전통의 모순구조로 파악한다. 이에 관해서는 홍석표, 「루쉰의 정신구조 : 모순의 통일적 주체」, 『중국현대문학』 3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 참조.

련했으며, 그러한 전환의 논리적 바탕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개 「노신추도문」이 발표된 1936년 말을 기점으로 한다.<sup>17)</sup> 주지하다시피 이육사는 1933년 4월 중국에서 ‘조선 군관학교’를 졸업하면서 혁명가로서 투사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굳힌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못해 귀국 후 그는 바로 체포되고 중국의 현 정세에 관한 몇 편의 시사평론을 발표하는 선에서 자신의 혁명적 열정을 표출한다. 일제의 탄압으로 사상적 활동조차 허용되지 않자 육사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바로 그 시기에 발표된 글이 「노신추도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루쉰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문학과 사상을 기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심층적으로는 육사 자신의 문학적 방향전환 혹은 문학으로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다짐하는 글이기도 하다. 육사의 시사평론이 ‘이활(李活)’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노신추도문」 이후에 이루어진 방향전환은 ‘이활’에서 ‘이육사’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sup>18)</sup>. 더 이상 정치적 행동이나 시사평론 같은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진 글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학의 논리, 문학의 존재 이유, 문학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 “1930년대 후반에 이육사는 그가 새롭게 봉착했던 실존적 고민들—신념(혁명가-투사로서의)과 생활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거리—의 해결책을 자신을 시인을 정위하는 데에서 찾으려고 했다”면, 이러한 “시인으로서 자기 정위의 논리”<sup>19)</sup>는 무엇인가?

17) 최근에 출간된 이육사 전집에는 “육사가 문학에 투신하여 시쓰기를 시작한 것은 30이 넘는 1930년대 중반 이후”라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바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큰 테두리로 보아 초역사적이며 순수문학이 갈래에 속”하는 초기의 문학적 경향을 극복되기 시작하며 이는 그가 “말기에 써서 남긴 몇 편의 작품으로 하여 명쾌하게 극복된다.” (김용직 편,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18) “투옥의 후유증으로 시작된 본격적인 요양 생활은 아이러니하게도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1935년 신석초와 함께 『신조선』 편집은 그의 사상적 열망을 문학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해석(박지영, 「이육사의 시세계 : 전통적 미의식과 혁명적 실천의 결합」, 『반교어문연구』 17, 반교어문학회, 2004)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육사의 방향전환에 대한 소극적인 의미부여에 지나지 않는다.

19) 류순태, 「이육사 시 「절정」의 비극적 실존의식」, 『우리문학연구』 38, 우리문학

1930년대 후반 육사는 이런 질문들에 정면으로 봉착해 있었으며, 육사는 루쉰의 삶과 문학과와의 만남을 통해 이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얻게 된다.

### 3. 이육사의 정치평론과 「노신추도문」에 드러난 문학적 모색

「노신추도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육사가 1934년 9월부터 1936년 8월 까지 발표한 몇 편의 시사평론들을 검토해보자<sup>20)</sup>. 당대 중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이 글들은 개인적 감상의 피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수필도 아니며, 그렇다고 당대 조선의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다루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성격의 글이다. 여기서 당대 중국의 현실이 매우 자세히 다루어진 것은 육사가 단순히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중국의 현실에 접한 것이 아니라 몸소 보고 겪은 체험이 질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 번에 걸친 육사의 중국 체류에 기인한다. 이 몇 편의 글을 ‘정치평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러한 글쓰기의 핵심은 바로 예리한 통찰과 비판적 안목에 놓여 있을 것이다. 육사는 특히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의 허위와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에 대한 의존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판이 시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흥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체계화된 의식’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이는 1933년 중국의 조선군관학교에서 육사가 받은 교육 덕분일 것이다. 단순히 군사 기술을 습득하는데 머물지 않고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육사의 정치평론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회, 2013.

20) 육사가 발표한 시사평론들은 다음과 같다: 「五中全會를 앞두고 外分內裂의 中國政情」, 『신조선』, 1934년 9월; 「國際貿易主義의 動向」, 『신조선』, 1934년 10월; 「危機에 臨한 中國政局의 展望」, 『개벽』, 1935년 1월; 「中國靑幫秘史小考」, 『개벽』, 1935년 5월; 「1935년과 露佛關係 展望」, 『신조선』, 1935년 11월; 「中國農村의 現狀」, 『신동아』, 1936년 8월.

우선 중국 인민들의 고난을 고발함으로써 이에 빗대어 조선 민중의 고통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예컨대 「중국 청방비사(靑幫秘史) 소고」에서 그는 국민당 세력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민족적·민주적 구호와 무관하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노동자들과 진보적 지식인·학생들을 탄압하면서 반혁명적 만행을 저질렀는가를 가차 없이 비판하고 있는데, 육사는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이 읽은 이의 가슴에 겹쳐지기를 원했을 것이다. 또한 육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가감 없이 보여줌으로써 조선이라는 약소국가의 위기상황을 경고하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특히 「1935년과 노불관계 전망」이라는 글은 비록 중국의 현실을 다루지는 않지만 육사의 세계사적 안목이 잘 드러난 평론이다. 근대 지향과 탈식민지라는 세계사적 시선 속에 중국의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고찰하는 육사의 시선에서 우리는 조선과의 연대의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몇 편의 정치평론을 관류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육사 자신의 정치적 열정이다. 당대 조선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육사의 시선이 강력한 정치적 파토스를 동반한다. 1934년 귀국 직후 바로 검거 투옥되고, 투옥의 후유증으로 병을 얻고, 점차 정치적 행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육사는 자신의 정치적 열망을 정치평론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치평론에서는 문학작품과는 다른 강도와 방식의 유토피아적 전망과 행동의 파토스를 발견할 수 있다.

루쉰과의 비교에서 육사의 정치평론은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육사 또한 정치평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글에서도 정치평론을 낳게 한 동인으로 한 번도 루쉰을 지목한 바 없다. 그의 정치평론에 루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육사의 정치평론과 루쉰이 남긴 방대한 양의 '잡문(雜文)' 가운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글들 사이의 긴밀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루쉰의 삶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논쟁가나 비판적 독설가로서 루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잡문'의 효용성에 대해 루쉰의 다양한 글을 섭렵한 육사 자신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일 것이다. 실제로

루쉰은 격동하는 역사의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잡문'이라는 '새로운' 글쓰기의 형식을 집중적으로 천착한 바 있다 :

지금 필요한 것은 저항과 전투뿐이다. 더구나 소품문이 살아남은 것은 저항과 전투의 산물이다. (...) 마취성을 띤 작품은 마취를 견자와 마취당한 자를 함께 멸망시킨다. 살아남는 소품문은 반드시 비수이며 투창이며 독자와 함께 살아남기 위하여 한 가닥 혈로를 뚫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사람에게 유쾌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다만 절대로 '소파설'은 아니며, 하물며 위안이나 마취는 아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유쾌함과 편안함은 휴양이며 노동과 전투에의 준비이다.<sup>21)</sup>

이러한 저항과 전투를 위해 루쉰이 고른 무기가 바로 '잡문'이라는 '투창과 비수'였다. 그가 씹없이 발표했던 잡문·잡감·단평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성격의 짤막한 글에서 육사의 정치평론에서 분출되는 뜨거운 정치적 파토스를 감지한다. 이른바 '혁명의 시대'에 루쉰은 「아Q정전」이나 「광인일기」같은 허구적 글쓰기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으며, 잡문의 형식으로 정치적 열정을 발산하면서 '투창과 비수'로서 '잡문'의 글쓰기를 유감없이 실천했다. 루쉰은 이를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한다 :

사막 한가운데 서서 모래와 돌멩이가 나는 것을 바라보며 즐거울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성이 날 때는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맞아 온몸에 멍이 들고 머리가 깨져 피가 솟구쳐도, 그때마다 내 손으로 피를 멎게 하면서 아름다운 무늬의 응혈을 어루만지는 편이 선불리 중국의 문사들 꿈무늬를 따라다니거나 셰익스피어 곁에 다가서서 버터 바른 빵을 대접받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sup>22)</sup>

21) 『노신문집』 V, 일월서각, 1985, 109-110쪽.

22) 『노신문집』 III, 199쪽.

문제는 정치평론을 통해 정치적 열정을 해소하는 단계를 지나 문학의 길로 투신하고자 했을 때 루쉰이 이육사에게 어떤 길잡이가 되었는가하는 점이다. 이제 루쉰과 이육사 비교 연구의 핵심에 해당하는 「노신추도문」을 자세히 분석해보자. 이 글은 앞서 지적했듯이 1936년 10월 루쉰이 서거한 직후에 발표되었다. 육사는 우선 루쉰의 생애와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1932년 자신이 중국(상해일 것으로 추정)에 체류할 때 한 장례식장에서 직접 루쉰을 만난 일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한다. 「노신추도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만남의 자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sup>23)</sup>. 1932년 1월 루쉰은 중국민권보장동맹에 집행위원으로 선임된다. 갈수록 강해지는 국민당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정치범들을 보호하고 구명운동을 벌이며 공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상해에서 정식으로 창립이 선포되었다. 민권동맹은 사상과 정치의 자유 및 정부에 의해 탄압받는 사람들의 인권 옹호를 취지로 내걸었기 때문에 루쉰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권동맹의 모든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곧 국민당의 탄압이 시작되고 그해 5월 14일 국민당 특무요원들이 조직의 핵심인사를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이 단체의 총간사인 양전(楊銓)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sup>24)</sup>.

양전의 장례가 있던 날 루쉰은 체포될 것이라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수상과 함께 만국빈의관으로 찾아갔다<sup>25)</sup>. 바로 육사가 조문을 마치고 돌아설 때 루쉰 일행과 마주친다. 그때 육사는 루쉰의 인상을 “연회색 두루마에 검은 ‘馬掛兒’를 입은 중년 늙은이, 생화에 쌓인 棺을 붙들고 통곡하던” 사람으로 묘사한다.

23) 임현치, 『노신평전』, 실천문화사, 2006, 311-313쪽 참조.

24) 이육사는 그를 “당시 중국과학원 부주석이요, 민주혁명의 원로이든 楊杏佛”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25) 루쉰 평전에 의하면 그날 루쉰은 집을 나서면서 열쇠도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 평자는 이를 루쉰이 마음의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로 해석한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루쉰이 지었다는 칠언율시가 인상적이다 : 호기로운 정 어찌 옛날 같으랴만 / 꽃 피고 지는 건 꽃의 마음에 달렸네 / 강남의 빛속에서 눈물 흘릴 줄이야 / 또다시 민족을 위해 용사들을 곡하네.(위의 책, 같은 곳)



이 짙막한 일화는 글 전체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글로만 읽던 루쉰을 직접 만났다는 점도 그러하거나와 루쉰을 실제 만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만남의 소회는 더욱 깊었을 것이다. 이제 육사는 본론으로 들어가 중국문학사상에 남긴 루쉰의 위치를 설명한다. “현대중국문학의 아버지인 노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阿Q의 正傳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실로 수많은 阿Q들은 벌써 자신들의 운명을 열어 갈 길을 노신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루쉰은 현대중국문학의 아버지로서 「阿Q正傳」과 같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중에게 올바른 근대로의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다. 육사는 루쉰의 문학 및 사상의 변천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이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의 발전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첫 번째 시기 : 「광인일기」와 「阿Q正傳」으로 대표되는 시기.

이 글에서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시기적으로 그의 처녀작 「광인일기」를 『신청년』에 발표한 1918년부터 중편소설 「阿Q正傳」을 발표한 1921년을 거쳐 두 번째 소설집인 『방황』을 발표한 1926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광인일기」와 「阿Q正傳」을 비롯한 루쉰의 소설에서 육사가 주목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1) 이 소설들은 “신해혁명 전후의 봉건사회의 생활을 그린 것으로, 어떻게 필연적으로 붕괴하지 않으면 안 될 특징을 가졌는가를 묘사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살아갈까를 암시하”는 작품들이다.

2)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를 묘사하는 방법, 즉 ‘디테일’의 ‘레알’한 묘사로서 이 작품들은 “당시의 혁명과 혁명적인 사조가 민중의 심리와 생활의 ‘디테일스’에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가장 ‘레알’하게 묘사”한다.

3) 그 결과 “그의 소설에는 주장이 개념에 흐른다거나 조금도 무리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孔乙己」의 주인공 ‘공을기’나 「阿Q正傳」에 나오

는 '阿Q'의 묘사가 이에 해당한다.

육사는 단순히 루쉰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조선에서 루쉰 정신을 음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문제의 핵심과 마주친다. 루쉰 정신의 요체는 무엇이며, 이 정신이 현 시점 조선의 상황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육사 특유의 긴 호흡의 문장으로 들어보자 :

그의 작가로서의 태도를 통하여 일관하여 있는 노신 정신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데 적지 않은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조선문단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술과 정치의 혼동이니 분립이니 하여 문제가 어찌 보면 결말이 난 듯도 하고 어찌 보면 미해결 그대로 있는 듯도 한 현상인데, 노신 같이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은 이 예술과 정치란 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214쪽)

이에 대해 육사는 “노신에 있어서는 예술은 정치의 노예가 아닐 뿐 아니라 적어도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인 동시에 혼동도 분립도 아닌” 제 3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아쉽게도 육사는 자세한 추가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육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도 정치와 혼동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자율성의 영역으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은 이 글의 뒷부분에서 시도하기로 하고 육사의 답변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자 :

우수한 작품, 진보적인 작품을 산출하는 데만 문호 노신의 위치는 높아갔고, 아Q도 여기서 비로소 탄생하였으며, 일세의 비평가들도 감히 그에게는 함부로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216쪽)

## 2. 두 번째 시기 : 1928년 이후 혁명문학 논쟁의 시기.

중국 공산당의 혁명이 퇴조하면서 상해 문학계의 일부 젊은 공산당원들이 '혁명문학'의 가치를 높이 내걸고 루쉰을 공격한 시기이다. 이른바 '혁명문학' 논쟁의 시기를 이육사는 루쉰의 삶에서 두 번째 시기로 지칭한다. 이 글에는 생략된 당시의 정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루쉰의 공격한 대표적 인물로 '태양사'(太陽社)를 설립하고 『태양월간』을 창간한 전행촌(錢杏村)을 들 수 있다. 이육사 또한 전행촌의 루쉰 비판을 인용하고 있다. 전행촌은 루쉰을 가장 격렬하게 공격한 인물로서 『태양월간』에 「죽어버린 아Q 시대」란 글을 발표하여 편집자로부터 "여러 가지 혼란한 노신론을 깨끗이 정리하기에 충분한 글"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이 글에서 그는 "노신은 결국 이 시대의 표현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노신의 사상은 청대 말기에 완전히 정체해 있어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노신이 자유주의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어 지도자 의식, 영웅의식을 뇌리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아Q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죽어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시대의 유해에 연연하지 말고 아Q의 시신을 그의 정신과 함께 매장해버려야 한다!". 이러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에 루쉰은 혁명문학의 치명적 문제점은 현실생활의 어두움과 폭력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응수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도피철학에 대항하여 문학예술과 사회가 서로 의존하며 발전하는 상생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혁명문학가들이 고취하는 '문학은 곧 선전'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이에 대한 전행촌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

어둠을 폭로하려면 동시에 빛을 창조해낼 수 있어야 하며, 빛의 창조가 없는 폭로는 '맹목적인 폭로'에 지나지 않는다. 노신의 눈길은 어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은 무덤을 향하는 길이고 밑바닥까지 몰락하는 길이다.<sup>26)</sup>

이러한 정황을 염두에 두고 육사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루쉰의 작품은 계급성을 담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육사는 그의 작품에서 프롤레타리아적 특성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노신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을 때는 중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푸로레타리아는 없을 뿐 아니라, 그때쯤은 뿌르조아 민주주의적인 정치사조조차도 아직 界線이 분명하지 못하였다”(216~217쪽)고 하면서 루쉰의 행보를 옹호한다. 이는 루쉰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강조한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육사는 루쉰이 프로작가인가 아니면 농민작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창작에 있어서 진실하게 명확하게 묘사하는 태도를 가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sup>27)</sup> 이를 이육사는 루쉰의 창작에 대한 ‘모랄’이라고 보고, “우리의 뼈에 사무치고도 남을만한 시사”라며 극찬한다.

### 3. 세 번째 시기 : 작가로서 화려한 생애를 종언하고 투쟁하던 시기.

앞서 설명한 두 번째 시기를 특징짓는 혁명문학 논쟁은 1929년에 접어들면서 가라앉았고, 1929년 후반부터 반국민당 문학인 통일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면서 1930년 3월 루쉰을 필두로 좌익작가연맹(좌련)이 창립된다. 좌련은 문학을 ‘해방투쟁의 무기’로 규정하고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중국의 프로문학 운동의 발전을 지도”하며 “광대한 대중을 획득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진영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임무로 삼았다. 이제 루쉰은 본격적으로 ‘투창과 비수’를 무기로 현실참

26) 이상 임현치, 『루쉰평전』, 241-249쪽 참조.

27) 이육사가 인용하는 루쉰의 글은 다음과 같다 : “반드시 참된 현실과 생명을 같이 하고 혹은 보다 깊이 현실의 맥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 “구사회를 조그만치 공격하는 작품일지라도 만약 그 결점을 모르고 그 病根을 투철히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은 유해할 뿐이다.” ; “옛 것을 분명히 알고 새로운 것에 看到하고 과거를 了解하여 장래를 추단하는 데서만 우리들의 문학적 발전은 희망이 있다. 생각건대 이것만은 현재와 같은 환경에 있는 작가들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그래야만 참된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여의 길에 매진한다. 이를 두고 이육사는 “손으로 쓰기보다는 발로 달아 나기가 더 바빴”던 시기로 설명한다. 중국문학의 ‘막심 고리키’였던 루쉰이 혁명의 전사로 ‘앙리 발뷔스’보다 비참하게 투쟁하면서 중국 프로문학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했던 시기로 요약한다. 루쉰 생애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육사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그만큼 이육사 자신은 이 시기의 루쉰에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이육사를 포함한 한국 문단 전체의 루쉰 이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에 머물러 있었고, 루쉰의 세 번째 시기에 대한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 「노신추도문」에 드러난 ‘루쉰정신’의 핵심

이제 이육사가 「노신추도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되새기고자 한 ‘루쉰정신’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해보자. 이육사는 루쉰의 생애를 크게 문학적 시기(루쉰의 대표작인 「광인일기」와 「아Q정전」을 위시하여 그의 소설집 『외침』과 『방황』이 발표되었던 시기), 혁명문학 논쟁의 시기, 좌련 및 민국동맹에 참여한 행동의 시기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육사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시기가 바로 첫 번째 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루쉰은 문학가·사상가·혁명가의 다원적 모습을 지니고 있다. 루쉰의 연구는 대개 이 세 가지 모습 가운데 어느 부분이 루쉰에게 핵심적이며, 이 세 가지 모습이 보여주는 통일과 모순의 양상이 무엇인지에 관련된다. 이육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문학가로서 루쉰의 모습에 주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인 혁명문학 논쟁에서 크게 상처받은 문학가 루쉰을 옹호하고 복원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로서 루쉰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세 번째 시기에 대해서는 커다란 주목을 하지 않으며 추도문에서 차지하는 분량도 짧다. 이육사가 1933년 중국의 조선 군관학교에 다니면서 계획했던 혁명가로서의 삶의 목표를 떠올리면 언

뜻 수궁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글을 쓸 당시 이육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문학을 통한’ 행동과 참여의 길을 걷고자 했다. 이육사가 걷고자 한 ‘문학의 길’은 루선의 첫 번째 시기에서 가장 큰 공감대를 발견하며 두 번째 시기에 루선이 받은 비판과 루선이 제기한 반론에서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육사는 루선의 문학이 보여주는 ‘모랄’이나 창작의 방식 등에 큰 공감을 표명한다. 실천과 저항으로서 문학을 강조하면서도 결코 손상되어서는 안되는 문학의 심미적 가치나 문학작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디테일한 묘사 등은 이육사와 루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학적 덕목들이다.

그렇다면 이육사가 루선의 첫 번째 시기를 정리하면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루선의 문학이 보여주는 예술(문학)과 정치의 관계란 무엇일까? 이를 육사는 “예술은 정치의 노예가 아닐 뿐 아니라 적어도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인 동시에 혼동도 분립도 아닌” 제 3의 지위로 설명한다. 육사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문학과 정치가 일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한다. 이미 카프가 해산된 상황에서 카프가 주장하듯이 문학이 정치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도 없고, 구인회 같은 모더니즘 작가들이 주장하듯이 문학은 정치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육사는 자신이 걸어갈 문학의 길에 핵심적일 이 질문의 답을 루신에게 구했던 셈이다. 육사가 모호하게 설명한 문학이 정치와 맺는 ‘제 3의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문학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 루신이 취한 입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혁명이 4. 12 쿠데타로 좌절되고 국민당 정부에 의한 극심한 정치적·사상적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혁명문학론이 전개된다. 루신에 의하면 혁명문학론은 “문학으로써 혁명을 선전하고 고취하고 선동하여 혁명을 촉진시키고 또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루신을 맹렬하

게 공격한 문인들은 주로 '창조사' 그룹과 '태양사' 그룹을 중심으로 활동한 젊은 문인들이었고, 루신토 이들의 공격에 맞서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치열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혁명문학론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1926년에 발표된 귀모뤄의 「혁명과 문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귀모뤄는 문학을 크게 '혁명적인 문학'과 '비혁명적인 문학'으로 나누면서, "혁명적인 문학은 반드시 찬미되어야 하는 문학이며 반혁명적인 문학은 반드시 적대되어야 하는 문학"이라고 주장한다 :

문학은 영원히 혁명적이며 오직 혁명문학만이 진정한 문학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학은 언제나 혁명의 선구이며 혁명의 시기는 항상 문학의 황금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학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 얘기할 때 문학과 혁명은 일치하는 것이지 결코 병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28)</sup>

이와는 반대로 루신토는 1927년에 발표된 「혁명시대의 문학」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문학은 혁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문학의 '무용성'이다 :

혁명지역에 있는 문학가는 어쩌면 '문학은 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즉 문학은 혁명을 선전하고 고취, 선동하며 혁명을 촉진하고 혁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문학은 무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혁명의 입장에서는 '혁명가'가 필요한 것이지 '혁명문학'은 그다지 서둘러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sup>29)</sup>

귀모뤄가 "문학은 어떻게 하여 혁명의 선구가 될 수 있으며 혁명의 시기

28) 귀모뤄, 「혁명과 문학」, 전형준 편, 『문학과 정치 : 현대중국의 문학이론』, 중앙일보사, 1989, 31쪽.

29) 루신토, 「혁명시대의 문학」, 위의 책. 65쪽.

는 어떻게 황금시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데 반해 루쉰은 대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 "문학은 없어지고 외침도 없어진다"고 응수한다. 그 이유를 루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누구나 다 혁명의 물결에 휩싸여 외침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며 혁명운동에 바빠서 한가하게 문학이나 지껄이고 있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때는 생활이 어려워져서 열심히 빵을 찾는 일만 해도 힘이 겨울 텐데 어디에 문학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 대혁명의 시대에는 누구나 바쁘고 또 곤궁합니다.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서로 대치해서 싸우고 현재의 상황을 변혁하는 일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마당에 글을 쓸 시간은 물론 그런 마음도 생겨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혁명의 시대에 문학은 침잠해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sup>30)</sup>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루쉰은 혁명문학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혁명 그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그 중요성을 축소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루쉰의 글 곳곳에서 국민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과 열망을 읽을 수 있다. 문제는 혁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과는 별도로 문학이 혁명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이다. 루쉰이 혁명문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취한 것은 문학이 혁명으로 대표되는 정치에 예속될 경우 문학은 더 이상 외침으로서(그의 첫 창작집의 제목이 『외침』이었음을 상기하자)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되고, 한낱 구호로 전락할 위험 때문이다. 루쉰이 보기에 문학은 구호가 아니다. "한 수의 시는 군벌 손전방(孫傳芳)을 위협할 수 없지만 한 방의 포탄은 손전방을 퇴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루쉰이 말할 때 그는 문학의 무기력함, 문학의 무용성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이는 혁명의 시대에 문학의 몫은 '포탄'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혁명'전쟁'만이 있을 따름이

---

30) 위의 책, 68쪽.



라는 루쉰 특유의 냉정한 현실론을 보여준다. 적어도 귀모뤄의 혁명문학론이 보여주는 낭만적 도취가 여기서는 말끔하게 제거되어 있다. 루쉰은 “문학은 여유의 산물이고 한 민족의 문화를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점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혁명문학론과는 구별되는 논리적 틀로 문학과 혁명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왕후이의 루쉰 해석의 한 지점과 마주친다. 즉 “루쉰이 창도한 것은 시종일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히 진격하는 영원한 혁명가”<sup>31)</sup>라는 해석이다. 루쉰이 강조한 ‘영원한 혁명가’는 ‘직업적 혁명가’의 대척지점에 놓인다. 실제로 루쉰은 혁명을 기치로 내건 집단적 운동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었다. 그는 혁명이 직업적 혁명가에 의해 ‘혁신-유지-복고’의 과정을 겪는 것을 비판적인 시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혁명’만이 진정한 혁명임을 확신했다. 또한 루쉰이 생각하는 혁명은 선언적으로 제시되는 과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진행되는 구체적 행위로서 혁명이다. 순간적, 일시적 혁명이나 구호로 외치는 혁명은 진정한 혁명이라 부를 수 없다. 혁명은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혁명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수행되어야 할, 항상 완결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루쉰에게 ‘혁명’은 언제나 미완태이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당위적인 명제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혁명’을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할 현실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루쉰이 혁명문학론의 기세가 등등했던 상황에서 결국 잡문의 형식으로 수행한 ‘영원한 혁명’의 길, 이것이 바로 이육사가 문학의 형식으로 걷고자 한 길이 아니었을까?

1936년 루쉰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육사에게 남은 길은 정치적 행동과 참여의 길도 아니었으며, 혁명문학의 길도 아니었다. 물론 이육사는 북경 감옥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낸 사실에서 알 수

31) 왕후이, 『절망에 반항하라 : 왕후이의 루쉰 읽기』, 글항아리, 2014, 21쪽.

있듯이 정치적 행동의 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동의 폭과 가능성을 날로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몇 편의 정치평론을 통해 마치 루쉰이 '잡문'의 형식을 통해 현실을 향해 '투창과 비수'를 날렸듯이 정치적 행동에 버금가는 글쓰기를 수행한 적도 있었지만 그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대 조선의 현실을 중국의 현실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도 육사가 꺼내든 '비수'의 칼날을 무디게 만든 요인이었다. 파시즘의 광기 속에서 육사는 묵묵히 문학을 통한 진정한 혁명, 영원한 혁명의 가능성을 시쓰기를 통해 이루어나가고자 했다. 그가 시 「광야」에서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다고 비유했던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래서 육사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혁명문학이 주장하듯이 상상 속의 밝은 미래를 현재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그것이 비록 혁신된 현재라 하더라도) 미래의 미정형의 시간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문학의 길을 걷고자 하면서 육사가 루쉰으로 받은 메시지가 아닐까?

여기서 필자는 '기다림'으로서 육사의 시간의식에 주목하게 된다. 시 「광야」에서 '지금 여기'는 앞뒤로 '까마득한 날'과 '천고 뒤'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그 '천고 뒤의 시간'이란 부단히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적 행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는 '천고 뒤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실존적 기투행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단히 현재를 넘어서야 할 '영원한 혁명'의 시간의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영원한 혁명의 시간의식을 다가올 광복예의 희망이라는 민족주의적 해석에 가두어놓아서는 안된다. 지금, 이곳에서 시인이 “목놓아 부르”는 노래, 시인 뿌리는 “가난한 노래의 씨”는 막연히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수동적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시인에게 '지금 여기'에 갇힌 인간, 지금 여기의 제도와 관습과 체제에 만족하는 인간을 넘어서게 하는 힘은 부단한 자기각성과 자기초월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이는 루쉰이 영원한 혁명을 추구하면서 그 힘을

직업적 혁명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영웅적 몽상이 아니라 부단한 자기반성과 성찰에서 찾았던 것과 동일하다.

## 5.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

바로 이 지점에서 루쉰의 영원한 혁명가는 니체가 말하는 '위버멘쉬(Übermensch)'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루쉰의 글 도처에서 니체적인 수사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sup>32)</sup>. 루쉰은 마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가 그랬듯이 항상 현재의 절망적 현실과 대면하여 그것에 반항하며 전진하는 것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했다 :

그것은 바로 앞길이 무덤임을 알면서도 기어이 걸어가려는, 즉 절망에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망 속에서 반항하는 것은 어려우며, 희망 때문에 투쟁하는 것보다 더욱 용맹스럽고 비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sup>33)</sup>

앞에 무덤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발길을 재촉하기, 마치 무덤 속에 있더라도 한 듯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의 빛을 일깨우기, 이는 루쉰이 강조하는 '입인(立人)'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를 빌어 말한대로 오랜 잠에서 깨어난 자가 있어 대중들은 그를 '교량' 삼아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절망과 희망에 대한 루쉰의 독특한 태도를 만든다. 루쉰은 절망에

---

32)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제는 노신이 니체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받아들인 것은 무엇인지, 아울러 노신이 19세기 서구의 근대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니체에게서 발견했다면 그것과 당시 노신이 생각한 향후 중국의 방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서광덕, 「노신과 근대」, 『노신의 문학과 사상』, 백산서당, 1996, 109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니체의 '위버멘쉬', 루쉰의 '입인(立人)', 유사의 '초인'이 어떤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3) 1925년 4월 11일 자오치원에게 보낸 편지.

투항하지도, 희망에 의탁하지도 않았다. 절망과 희망에 대한 루쉰의 태도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가 절망에 투항했다면 그의 세계관은 허무주의적 색채를 띠었을 것이고, 희망에 의탁했다면 행동주의로 빠져들었을 것이다 :

앞길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절망에 대한 반항을 의미합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반항하는 것이 힘겨운 것으로, 희망 속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용맹하고 훨씬 비장하다고 생각합니다.<sup>34)</sup>

절망에 대한 루쉰의 태도를 다케우치 요시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쉰이 절망했을 때 절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은 무리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의 희망은 당연히 비웃을 만하다. 그는 비웃었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조소했다. (...) 희망을 비웃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 희망을 비웃는 웃음은 절망도 비웃는다. 그는 절망에 안주하지 않았다. 절망을 절망했던 것이다. 절망에 길을 물어 겨우 당도했던 것대로라면 그는 한 명의 허무 철학자에 그칠 것이다.<sup>35)</sup>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그가 취한 긴장은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실존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루쉰이 말한 영원한 혁명을 단순한 정치·사회적 실천의 차원에 국한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 절망과 희망에 대한 그의 복합적인 태도가 잘 보여주듯이 루쉰이 지향하는 영원한 혁명은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존적 투기를 바탕으로 하며, 선택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실천적 삶에 근거한다. 절망적인 환멸이 끝까지 간 지점에서

---

34) 서신, 1925. 4. 11.

35) 다케우치 요시미, 『루쉰』, 문학과지성사, 2004, 131쪽.

꿈꾸어 볼 수 있는 희망, 이는 루쉰의 초기 소설에서 '지상의 길'이라는 적절한 비유로 나타난다. 필자는 여기서 이육사가 루쉰의 여러 소설 가운데 유독 「고향」이라는 단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의미 있는 암시를 얻게 된다<sup>36)</sup>. 이 작품이 다루는 고향의식이라는 주제론적 측면에서 루쉰과 이육사 사이의 친연성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지상의 길'이라는 비유를 통해 드러난 절망과 희망의 관계에 대해 이육사가 보낸 깊은 공감의 표시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루쉰이 남긴 가장 기억할만한 구절로 유명한 이 작품의 말미를 육사는 다음과 같이 옮기고 있다 :

생각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대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또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지상에 길과 같은 것이다. 길은 본래부터 지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길은 스스로 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길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님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작품에서 화자는 스스로 그 다니는 사람의 역할을 할 것을 자임한다. '나'는 다님으로써 원래부터 없던 길을 새로 만들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36) 이육사 이전 루쉰 번역은 「아Q정전」이나 「광인일기」 같은 대표작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루쉰의 작품으로는 「광인일기」가 1927년 유기석에 의해 최초로 번역되었으며, 양건식의 「아Q정전」 번역과 관련해서 정래동의 비판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육사의 「고향」 번역은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문학의 입지가 확연히 좁아지면서 중국문학 번역의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즉 이육사의 루쉰 번역은 식민지 시기 루쉰 번역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다. 루쉰의 「고향」은 해방 직후 김광주와 이명선에 의해 다시 번역됨으로써 「아Q정전」, 「광인일기」와 더불어 루쉰의 대표작으로 자리잡게 된다.

37) 루쉰, 「고향」, 이육사 옮김, 『조광』 1936년 12월. 실제로 이 작품은 루쉰의 작품 가운데 희망이 언급되어 있는 몇 안되는 작품으로 간주된다. 시기적으로 「마을 연극」 이후 소설의 일인칭 화자는 더 이상 희망을 꿈꾸지 않고 한층 깊은 고뇌 속으로 파고든다. 대표적인 예로 「술집에서」의 화자는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허무감에 질게 감염되어 있다.”(전형준, 「소설가로서 노신과 그의 소설 세계」, 『중국현대문학』 10,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996)

다닐 수 있게 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루쉰의 실존의식은 그의 글 곳곳에서 '길'에 대한 사유로 나타난다. 루쉰이 말하는 진정한 혁명은 '길 위에서' 끝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시지프스가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듯이 루쉰의 '초인'도 쉽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다. 루쉰의 '초인'은 끝 모를 길을 쉽없이 가야만 하는 나그네의 부조리한 삶을 견뎌야 한다. 이를 루쉰은 무덤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공간을 끝없는 떠도는 행위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암흑이 나를 삼켜버릴지도 모르고 광명이 나를 지워버릴지도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그림자처럼 방황하다 기꺼이 한 점 '불꽃'이 되고자 한 루쉰의 행보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의 길"이다. 루쉰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러한 길에 대한 사유를 풀어놓는다 :

인류의 멸망을 놓고 말하면 그것은 자못 쓸쓸하고 애달픈 일이다. 그러나 몇몇 인간의 멸망은 결코 쓸쓸하고 애달픈 일이 아니다. 생명의 길은 전진하는 길이다. 그것은 언제나 무한한 정신삼각형의 사변을 따라 위로 올라갈 것이며, 그 어떤 힘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비조화적인 것이 아직도 많으며 인간 자체가 위축되고 타락하여 뒷걸음질 치는 현상도 아직 매우 많다. 하지만 생명은 이 때문에 돌아서지 않는다. 그 어떤 암흑이 사조를 가로 막는다 해도, 그 어떤 비참한 것이 사회를 습격한다고 해도, 그 어떤 최악이 인간 도덕을 모독한다 해도 완벽을 갈망하는 인간의 잠재력은 언제나 이러한 가시철망을 짓밟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 웃고 날뛰면서 멸망하는 인간들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간다. 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길이 없던 곳을 밟고 걸어서 생긴 것이며 가시덤불 속에서 개척해낸 것이다. 이전에 이미 길은 있었고 앞으로도 길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생명은 전진하는 것이며 낙천적인 것이므로 인류는 절대 씹쓸하지 않을 것이다.<sup>38)</sup>

---

38) 『노신전집』 2, 191쪽.

이육사 또한 여러 편의 글에서 ‘문학의 길’ 혹은 더 넓게 ‘삶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한 바 있다. 다음 글은 글의 말미에 나오는 ‘1936년 12월 5일 밤’이라는 표시가 알려주듯이 1936년 말에 씌여져 이듬해 3월 『風林』이라는 잡지에 발표되었다. 1936년 하반기는 바로 「노신추도문」이 발표된 해로 루쉰의 삶과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의 길과 문학의 길을 재정향하려는 의지가 이 글에서 잘 드러난다 :

태풍이 몹시 불든 날 밤 윈 시가는 창세기의 첫날 밤 같이 암흑에 흔들리고 폭우는 활살같이 퍼붓은 들판을 걸어 바닷가로 뛰어나갔 습니다. 가시덩쿨에 엮터지락 잡버지락 문학의 길도 그럴년지는 모르지마는 손에 들인 전등도 내 양심과 같이 겨우 내 발끝 밖에는 못 비치드군요. 그러나 바닷가를 거의 다였을 때는 파도소리는 빈질 때만은 영롱하게 빛나는 바다의 一面! 나는 아즉도 꿈이 아닌 그날 밤의 바닷가로 태풍의 속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sup>39)</sup>

마치 ‘창세기의 첫날 밤’ 같이 암흑 천지의 폭풍우가 치는 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깜깜한 밤길, 그것도 가시덩쿨이 깔린 가시밭길을 헤쳐나가 마침내 바닷가에 이르러 번개불에 ‘영롱하게 빛나는 바다의 一面’을 바라보는 순간이란 무엇일까? 이는 곧 문학의 길, 삶의 길은 형극과도 같지만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 삶의 ‘어둠’을 비추어주는 문학의 빛을 발견하리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이는 이 글의 앞부분에 표명된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 즉 육사에게 생활이란 남이 긍정하고 향락하는 것을 자신도 누리려는 일반적인 쾌락지향적 방식과는 달리(그렇게 되면 타인의 쾌락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 타인의 즐거움을 질투하게 될 터이니), “내가 부정할 바를 부정하는” 삶 혹은 “다른 어떤 사람도 분배를 요구치 않는 고민을 내 혼자 무한히 고민”하는

39) 이육사, 「嫉妬의 叛軍城」, 『이육사전집』, 137-138쪽.

긍정하는 삶의 선택이다. 이를 우리는 ‘초인적’ 삶의 방식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는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정하고, 나를 넘어서고, 나를 초월함으로써 더 큰 차원의 긍정을 만들어내는 삶이다. 자신의 길을 험난함을 이겨내는 고독한 영웅의 자세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는 태도, ‘태풍의 속’을 걸어가는 고독한 영웅의 초인적 삶의 방식이야말로 육사의 삶과 문학을 특징짓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을 「嫉妬의 叛軍城」과 같은 해에 발표된 육사의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인생의 門外漢이 되겠소. 그래서 남들이 모두 門 안에서 보는 세상을 나는 門 밖에서 보겠소. 남들은 깊이 보는 세상을 나는 널리 보며 또 그만큼 자궁이 있을 것 같소. 오늘은 고기압이 어데 있는지 풍속은 64미터요. 이 동리를 떠나 아무도 발을 대지 않은 대설원을 걸어 가겠소. 前人未到의 원시경을 가는 느낌이오. 누가 나를 따라 이 길을 올 사람이 있을는지? 없어도 나는 이 길을 영원히 가겠소.<sup>40)</sup>

여기서 육사는 소시민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인생의 문외한’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다 해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견뎌내며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문 밖에서의 삶’은 좁은 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시민적 삶’이 이야기하는 책임과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시민적 삶의 방식을 지켜보고 관찰할 수 있는 여유와 객관적 시각까지 확보할 수 있다.

1938년 12월에 발표된 「季節의 五行」은 삶과 문학을 대하는 육사의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난 글이다. 육사의 수필에는 마지막 부분에 글의 메시지가 강렬한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글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육사는 삶과 문학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40) 이육사, 「인생의 문외한」, 『이육사전집』, 145쪽.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겸양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오. 그렇소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내 자신에 희생을 요구하는 노력이오. 이래서 나는 내 기백을 키우고 길러서 金剛心에서 나오는 내 시를 쓸지언정 유언을 쓰지 않겠소. (...) 다만 나에게는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따름이오. 그런데 이 행동이란 것이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한히 너른 공간이 필요로 되어야 하련마는 숯벼룩이 뚫어앉을만한 땅도 가지지 못한 내가 그런 화려한 팔자를 가지지 못한 덕에 나는 방 안에서 혼자 꼼처럼 뒹굴어보는 것이오.<sup>41)</sup>

이 인용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루쉰의 글과의 강한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 :

인생의 긴 길을 걸어가노라면, 두 개의 큰 난관에 봉착하기 쉽다. 그 하나는 '기로'요.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묵적(墨翟)선생은 기로를 만나자 통곡하면서 되돌아갔다고 하오. 그러나 나는 울지도 않고 되돌아서지도 않을 것이오. 먼저 기로에 앉아서 잠시 쉬거나 한 잠 자고나서 갈 만하다고 생각되는 길을 선택하여 계속 걸어갈 것이오. 혹시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음식을 얻어 요기를 할지는 모르나 길을 묻지는 않을 것이오. 그 역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만약 호랑이를 만나면 아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갈 것이오. 그 놈이 기다리다 못해 배가 고파 가버린 다음에야 내려올 참이오. 만약 그 놈이 가지 않으면 나도 나무에서 뛰어 죽을 작정이오. 그러나 죽기 전에 먼저 나를 나무에 끈으로 묶어 놓아 죽은 후라도 혹 내 시체가 그 놈에게 먹히지 않게 할 것이오. 그런데 만약 나무가 없으면? 그러면 방법이 없지. 그 놈에게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때에도 그 놈을 한 입 물어뜯고 죽을 것이오. 둘째는 '막

---

41) 이육사, 「계절의 오행」, 『이육사전집』, 162쪽.

다른 길'이요. 듣자하니 완적(阮籍) 선생도 한바탕 울고 되돌아섰다고 하오, 그러나 나는 기로에서 하던 방법대로 뛰어 들어가 가시덤불 속을 일단 좀 걸어가 볼 작정이요, 그런데 아직 나는 완전히 가시덤불 촌지여서 전혀 걸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나보지 못하였소. 소위 막다른 길이란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행히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소<sup>42)</sup>.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집요함', 최악의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행하려는 의지와 삶에 대한 강한 성실함의 자세가 돋보인다. '기로'에서 만난 호랑이와 맞서려는 불굴의 의지는 육사의 인용문에 나오는 표범 앞에서 "한 발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의지와 상통한다. 이제 육사의 글로 되돌아가자. '유언 같은 시'가 지나온 삶의 추억을 반추하고 회고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그에 대비되는 '행동으로서 시'는 미래를 지향하는 실존적 투기를 강조한다. '행동으로서 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태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 같은 근본적인 위협과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에 맞서나가려는 정신이며, 자신의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삶의 난관에 좌초되지 않고, 이를 기백과 용기, 희생정신을 통해 극복해가려는 초인적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육사는 '금강심에서 나오는 시'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이 글 이후에 발표된 육사의 대표 시에서는 강철과 같이 단단한 의지와 노력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생명력을 상실해 화석(化石)처럼 굳어진 시가 아니라, 무한히 너른 공간 속에서 미래를 향해 충만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시. 이것이 바로 육사가 지향했던 시세계이다.

「계절의 오행」에서 표명된 삶과 문학의 태도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바로 「절정(絶頂)」(1940)이다. 전부 4연으로 구성된 이 시의 3연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추락의 길밖에는 보이지 않는 극단적인

---

42) 루쉰, 「兩地書」, 1925. 3. 11.

전망을 보여준다. 특히 '매운 계절', '젓죽', '서릿발 칼날' 같은 이미지들은 극한상황으로서 '겨울'의 모습을 잘 형상화한다. 앞서 「계절의 오행」에서 육사는 유언의 시가 아니라 행동의 연속으로서 '금강심에서 나오는 시'를 쓰고자 하며, 이는 '무한히 너른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광야」가 무한히 확장되는 시공간의 상상력을 보여주었다면, 반대로 「절정」은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한없이 축소된 공간을 보여준다.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할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화자는 놓여 있다. 이는 「계절의 오행」에서 "숫벼룩이 꿇어앉을만한 땅도 가지지 못" 하다고 한탄한 육사의 처지와 유사하다. 그러나 육사가 수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정신의 도약, 실존적 존재 이행을 이루어내듯이 이 시에서도 마지막 연에서 결정적인 존재의 변환이 이루어진다. 즉 시인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극한상황에 잠시 거리를 두고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 행위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로부터 떠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시인은 본질적 세계의 실체와 마주한다. 이러한 자기성찰의 결과로 얻어진 이미지가 바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이미지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해석이 제시된 바 있지만, 루쉰과 이육사의 비교를 일단락하는 지점에서 루쉰의 다음 문단을 이 마지막 구절을 해석하는 실마리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넨 이런 걸 베껴서 무엇에 쓰려고 어느 날 밤 그는 내가 베낀 옛 비문의 사본을 뒤적이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글쎄, 아무 소용도 없을지 모르지.’ “그럼 자넨 무슨 의미로 그런 글을 베끼고 있는 건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네.” “내 생각엔 차라리 자네가 글을 좀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네만.....” 나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침 『신청년』이란 잡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특별히 그의 뜻에 찬동하는 사람도, 그렇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 또한 나처럼 어떤 적막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다. “가령 창문도 전혀 없고 쉽게 부술 수도 없는 쇠로 된 방이 하나 있다고 하세. 방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오래지 않아 모두들 숨이 막혀 죽을 거야. 하지만 흥미한 상태에서 곧장 죽음으로 빠져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비애를 느끼지 못할 걸세. 지금 자네가 큰 소리로 외치며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 몇몇을 깨워 일으켜서,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알게 한다면, 자넨 그들에게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몇 사람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 쇠로 된 방을 기어이 부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지 않겠나?” 그렇다. 아무리 내 나름 대로의 확신이 서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희망을 말했을 때, 이를 말살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희망이 없다는 나의 확신을 증명할 수도 없고 희망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를 설복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나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여 글을 쓰기로 약속했다. 그 글이 바로 나의 최초 작품인 「광인일기」이다. 그때 이후로 한번 뱉은 말을 다시 거둬들일 수는 없었다.<sup>43)</sup>

제법 긴 위의 글은 루쉰이 첫 소설 「광인일기」를 쓸 결심을 하게 된 일화를 들려준다. 1917년 신해혁명의 움직임이 무르익고 있을 때 루쉰은 평화롭고 조용한 태도로 하급 관리로서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옛 친구 하나가 찾아와 루쉰에게 근본적인 정신적 변화를 촉구한다. 그가 바로 『신청년』의 편집위원 가운데 일원이자 신문화운동의 명장인 전현동이다. 이 글에서 루쉰은 현 상황을 강철로 된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임종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모습으로 인식한다. 이 당시 루쉰은 일종의 자포자기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친구의 거듭된 설득에 루쉰은 희망이

43) 임현치, 『노신평전』, 119-120쪽에서 재인용. 또 다른 평전(주정, 『루쉰평전』, 북폴리오, 2006)에서도 이 일화는 ‘쇠로 된 집을 부수어라’라는 제목의 절에서 소개된다.

란 미래에 속하기에 희망이 없다고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일어나 강철로 된 방을 부실 수 있다는 희망에 자신의 글쓰기를 건다. 여기서도 희망은 『고향』의 마지막 부분에서와 같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시 「절정」에서 묘사된 겨울은 마치 이 글에서 루쉰이 비유한 ‘강철로 된 방’을 떠올린다. 강철처럼 단단한 절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두드리다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희망 아래 묵묵히 망치를 휘두르는 끈끈한 의지가 이 시에 담겨 있다. 또한 이 시의 마지막 행에 나오는 ‘무지개’는 희망의 비유적 등가물로 직결하기보다는 시 「파초」(1941)에서 육사가 그려낸 ‘무지개’의 모습과 연결된다. 이 시의 마지막 연인 “그리고 새벽하는 어제 무지개 서면 / 무지개 밝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에서 볼 수 있듯이, 희망은 한번 찾아오면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을 끝없이 극복하는 ‘순간순간’에 쟁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무지개와 “끝없이 헤어지”라고 말한다. 이 시에서 ‘무지개’은 희망의 실체가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실체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희망’에 가깝다. 루쉰은 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영원한 혁명’이라고 설명했으며, 육사는 강철과 같은 단단한 직선을 무지개의 아름다운 곡선으로 바꾸어가자고 말한다. 그런 맥락에서 ‘강철로 된 무지개’에서 ‘무지개’는 희망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과정, 희망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 희망으로 건너가는 다리에 가깝다. ‘강철로 된 무지개’는 ‘강철처럼 단단한’ 희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강철처럼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겨울을 무지개를 다리 삼아 한 발자욱 걸어 나가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 한다.

## 6. 나가며

한국 근대문학의 비교 연구는 주로 ‘영향(influence)’에 입각한 문학적 수수관계의 규명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영향론이란 영향을 준 작가/작

품과 영향을 받은 작가/작품 사이에 가치론적 위계질서를 형성하기 쉽다. 영향을 준 작가/작품이 영향을 받은 작가/작품에 비해 우월한 가치를 점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서양문학(외국문학)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수용의 환경에 처했던 한국 근대문학의 경우 영향론의 전제는 더욱 심화되고 왜곡될 공산이 크다. 더욱 심화된 영향론은 비교문학의 전파론적 전제를 강화하며, 왜곡된 영향론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작가나 작품의 독창성을 심할 정도로 훼손하기 쉽다. 지금까지 살펴본 루쉰과 이육사의 문학적 만남은 이러한 영향론의 전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루쉰은 영향을 준 작가로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육사는 영향을 받은 작가로서 수동적이고 주변부적인 위상을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두 작가 사이의 문학적 수수관계를 ‘영향’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문학적 ‘만남’이라는 일상적 용어를 위험을 무릅쓰고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루쉰은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의 과정에서 실존적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절망적 상황에서 함께 희망의 불빛을 찾아나선, 인생과 문학의 ‘벗’에 가깝다. 루쉰과 이육사 사이에는 영향을 주고받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환대와 우정의 수평적 관계가 놓여 있다. 루쉰과 이육사는 생전에 수많은 ‘적’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창과 비수’라는 언어의 무기를 담대하게 사용한 작가였지만 루쉰은 이육사를 살아생전 단 한번의 만남이었으나 따뜻한 환대와 격려로 맞이했고, 이육사는 자신의 삶이 한계에 부딪히고, 새로운 문학적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루쉰을 불러들였다.

우리가 이육사의 문학적 모색과 루쉰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논문의 제목으로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이라는 다소 일반적인 이름을 붙인 것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서양의 근대문학과 한국의 근대문학의 비교 연구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영향론이 한국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유효성을 상실한다는 점이 제목의 일반적 성격을 통해 환기되었으면 한다. 한국과 중국은 근대화의 과정에 있어 유사

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의 근대화 과정 비교는 한국과 서양,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 비교에서 발생하는 쟁점과는 다른 차원과 의미를 지닌다. 한·중 근대문학 비교는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발생하는 비교의 쟁점과는 다른 쟁점과 의미를 제시한다. 이육사와 루쉰은 그런 의미에서 한·중 근대문학 비교의 쟁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들이다.

## 기초자료

- 김태준, 「외국문학 전공의 변」, 『김태준 전집』 제 3권, 보고사, 1998.  
\_\_\_\_\_,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_\_\_\_\_, 『조선한문학사』, 태학사, 1994,  
루쉰, 『노신문집』, 일월서각, 1985.  
\_\_\_\_\_, 『루쉰전집』, 그린비, 2010.  
이육사, 『이육사전집』, 김용직 편, 깊은샘, 2004.

## 논문 및 저서

- 강계숙, 「근대성 창출의 또 다른 길」, 『인문학연구』 46, 조선대인문학연구  
구소, 2013.  
다케우치 요시미, 『루쉰』, 문학과지성사, 2004.  
류순태, 「이육사 시 「절정」의 비극적 실존의식」, 『우리문학연구』 38, 우  
리문학회, 2013.  
박지영, 「이육사의 시세계 : 전통적 미의식과 혁명적 실천의 결합」, 『반교  
어문연구』 17, 반교어문학회, 2004.  
박진영, 「중국 근대문학 번역의 계보와 역사적 성격」, 『민족문학사연구』  
55,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박현수, 『현대시와 전통주의의 수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서광덕, 「노신과 근대」, 『노신의 문학과 사상』, 백산서당, 1996.  
심원섭, 「이육사의 초기 문학평론 및 소설에 나타난 노신 문학 수용 양상」,  
『연세어문학』 19, 1986.  
\_\_\_\_\_, 「이육사의 서지마 시 수용 양상」,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왕후이, 『절망에 반항하라 : 왕후이의 루쉰 읽기』, 글항아리, 2014.  
유병관, 「육사의 시와 유교적 전통」, 『한국시학연구』 11, 한국시학회,



2004.

- 이시환, 「근대성의 궤적 : 이육사의 중국문학 수용과 변용」, 『동북아 문화연구』 3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 이용범, 「김태준과 귀모뤼 : 한 고전학자의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 『민족문학사연구』 5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겨울.
- 임현치, 『노신팅전』, 실천문학사, 2006.
- 전형준 편, 『문학과 정치 : 현대중국의 문학회론』, 중앙일보사, 1989.
- 전형준, 「소설가로서 노신과 그의 소설세계」, 『중국현대문학』 10,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1996.
- 정래동, 『정래동전집』 1권, 금강출판사, 1976.
- 정선태, 『심연을 탐사하는 고래의 눈』, 소명출판, 2003.
- 주정, 『루신팅전』, 북폴리오, 2006.
- 妙郷山人, 「중국문학의 가치를 논함」, 『개벽』 4호, 1920.
- 최병우, 「이육사 시 연구 : 한시 전통 계승문제」,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1986.
- 홍석표, 「루신팅의 정신구조 : 모순의 통일적 주체」, 『중국현대문학』 31,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4.
- \_\_\_\_\_, 「노신의 식민지 조선 인식에 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26, 중국어문학회, 2008.
- \_\_\_\_\_, 「이육사의 중국유학과 북경중국대학」, 『중국어문학지』 29, 중국어문학회, 2009.
- \_\_\_\_\_, 「시인 이육사와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 5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0.

〈Abstract〉

Issues of Comparative Study between Modern Korean  
Literature and Modern Chinese Literature : Literary  
Researches Of Lee Yook-sa and Lu Xun

Park, Sung-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riefly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works of Lu Xun, one of those representative figure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While studying in China, Lee Yook-sa became interested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striving to introduce and translate it. In June 1933 he became first Korean literary figure to meet Lu Xun. The meeting with Lu Xun awakened a strong sense of 'literary engagement' for Yook-sa. The era when Yook-sa wrote poem was characterized by not only physical oppression but also darkness and pain that hardly allowed any prospect. Lee Yook-sa's poetry became revolutionary after he had found the radical consciousness in closely related 'literature and revolution' figured in the works of Lu Xun. Through Lu Xun's work, Yook-sa found a perspective on the idea of unifying literature and politics. Lu Xun also stresses the practice of 'lirén(立人)' to develop one's personality and mind. An illustrative example of 'lirén(立人)' is a 'superman', a 'warrior of the mental world', who has stern attitude and high moral standards. In this respect, Lu Xun's 'lirén(立人)' closely resembles to 'superman(超人)' emphasized by Lee Yook-sa.

**Key words:** Lu Xun, Lee Yook-sa, Kim tae-jun, comparative literature, literary engagement. modern Chinese literature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

